

진도군, 4년 만에 인구 반등...체계적 '인구정책' 성과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등 자녀 1인 최대 1억1893만원 지원 청년공공임대주택·만원주택 조성 “군민체감 정책 지속 추진 노력”

4년 넘게 줄곧 감소하던 전남 진도군의 인구가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순증세로 전환됐다. 단순 유입을 넘어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이후 매달 평균 58명씩 감소하던 군 인구는 2025년 3월 말 기준 전월 대비 9명 증가했고, 4월에도 1명이 늘어나면서 4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군은 이를 올해 들어 본격 추진한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과 출산·보육·주거·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 여건 개선 정책의 결합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주소 갖기 운동'은 관내 주민과 기관·단체·사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 기반 주소 이전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육군 제8539부

대, 진도교육지원청, 진도소방서, 국립남도국악원 등 11개 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동참해 실거주지 주소 전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출산을 제고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책도 추진 중이다. 첫째아 1억743만원, 둘째아 1억843만원, 셋째아 이상 1억1893만원 등 자녀 1인당 최대 1억189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출산장려금부터, 출생기본수당, 입학축하금, 청소년 쿠폰(바우처), 고등학생 해외연수, 대학 신입생 장학금까지 총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육부담 완화와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전담형 1만원주택 60세대, 청년공공임대주택 18세대,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30세대 등 다양한 청년층 맞춤형 주거공간 조성이 한창이다.

청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희망일자리 지원, 근속장려금, 지역산

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창의적이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도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다.

외부 인구 유입의 확대를 위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예비 이주자들이 일정 기간 진도에 머물며 일자리와 생활 여건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진도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3개월 동안 거주가 가능한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중기 정착단계에는 귀농인의 집 7개소를 운영해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월 10만원에서 12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가 제공되어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희빈집을 리모델링한 '보배섬 하우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2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해 실거주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농가주택 수리비, 이사비, 영농·어업 자재,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도 병행하는 등 단계별 정착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군내 농공단지에는 지난해 농수산식품가공업 9블록이 모두 분양 완료돼 기업 입주를 신속히 지원 중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군농공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으로 총 86억 원이 투입, 도로·야간경관 정비 등 환경개선이 진행 중이다. 인근에는 청년문화센터가 조성돼 기숙사, 공동세탁실, 체력단련실, 취·창업 보육센터 등의 기능을 갖춰 근로자와 청년 정착을 유도하는 정주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군의 인구정책은 단순한 유입 숫자가 아닌, 지역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진도=백재현 기자**

스마트팜 시험포 교육생 모집
해남군, 청년·신규농업인 양성

전라남도 해남군은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 및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시험포) 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기술 확대 보급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총 6회에 걸쳐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기초 이론과 실습, 선진지 견학 등 현장 중심의 실용 교육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관수 및 양액 정밀관리 △미생물 활용 기술 △복합환경제어 관리 △딸기 정식 및 병해충 방제 △선진 농가 견학 등으로 스마트팜 운영 전반을 아우른다.

해남군에 거주하며 스마트팜 도입 또는 계획 중인 만 19세 이상·49세 이하 청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3년 미만 신규 농업인 8명을 선발한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0일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namd3319@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교육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전문메이커 교육과정 2기’
무안군, 18일까지 수강생 모집

전라남도 무안군이 국립목포대학교 창업혁신센터 내 MNU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오는 19일부터 ‘전문메이커 교육과정 2기’를 운영한다.

14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문메이커 교육과정 2기는 레이저가공기와 UV프린터, 2D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아크릴 소품 만들기를 주제로 수강생들이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 출력, 후가공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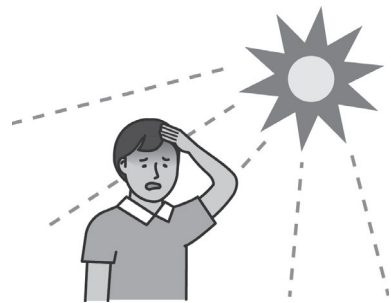
교육은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예비·초기 창업자와 제조 관련 기업, 대학생 및 지역 주민 등 만들기와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비는 목포대학교 재학생과 무안군민은 전액 지원되고 그 외 전남도민은 50% 할인된다.

MNU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청소년 대상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mnumakers.kr)를 확인하거나 전화(061-980-0026)로 문의하면 된다.

유영재 국립목포대학교 창업혁신센터장은 “전문메이커 교육과정은 실습 중심으로 구성돼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는 3D 제품 설계·디자인 심화과정, PCB 기반 제품 제작 고도화 과정 등 다양한 심화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운영해 창업과 시제품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해남군, 온열질환 예방 총력
응급실 감시체계 구축 등

올해 5~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라남도 해남군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응급실 감시체계를 조기에 가동했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된다. 지난해에 비해 5일 이른 가동으로, 관내 응급실이 갖춰진 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온열질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온열질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3704명까지 늘었다. 실외에서 발생한 환자가 78.7%, 이 중 80.1%는 논밭 등 야외에서 발생해 농어촌 어르신들의 위험도가 높았다.

지난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역대 1위인 25.6도를 기록했으며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48명에 뒤이는 34명에 달했다.

해남군도 선제적으로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주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등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더운 시간대(오후 12시~오후 5시) 야외 활동 자제하기 △외출 시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 차단하기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 시원하게 지내기(샤워 자주하기,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의 한 농가에서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현재 13농가, 4.5ha 면적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극조생 블루베리 수확 한창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블루베리가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 칼슘 등이 다량 함유돼 항산화와 면역력 강화, 시력 개선 등

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대표적인 슈퍼푸드로 꼽히고 있다.

해남산 블루베리는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해남군에서는 13농가, 4.5ha 면적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지난해 다수확 극조생 블루베리 시범사업을 통해 3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극조생 신품종 재배를 확대, 농가소득 향상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신안군, 삼암산 등산대회 개최

내달 14일 병어축제 병행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은 오는 6월14일 신안젓갈타운에서 ‘2025 지도읍 삼암산 등산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도읍이장협의회(회장 홍은배)가 주최하는 이번 등산대회는 지도읍의 대표 먹거리 병어축제 기간에 개최돼 맛보고 즐기는 특별한 날이 될 예정이다.

삼암산은 해발 197m로 높지 않고 산세

가 완만한 경사로 이뤄져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다. 산 정상에 오르면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신안의 병풍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지도읍의 특산품이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6월9일까지 지도읍사무소 총무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밖에 행사 당일에는 ‘섬 병어 축제’와 ‘지도 뽕땅 먹거리 축제’도 함께 열려 풍성한 즐길 거리 제공한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맛과 재미 가득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등산대회 추진 관계자는 “푸르름이 녹아 베인 삼암산의 자연 속을 걸으며 건강과 행복을 찾고, 병어 축제와 함께 지도읍의 맛과 멋을 한껏 즐기시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